

금호타이어, 타이어 가격 추가인상

국제유가 급등으로 2-3개월 후 4% 정도 인상 ... 구조조정 가능성

금호타이어가 2008년 들어 타이어 내수시장 가격을 5% 인상한데 이어 추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5월7일 발표했다.

오세철 금호타이어 사장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타이어 가격을 4% 정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기는 2-3개월 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애틀란타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현지 부지를 정리중인데 5월12일 기공식을 개최하고 1차로 1억6500만달러를 투자해 생산능력 210만개의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2차 투자까지 마무리되면 생산능력 320만개 수준을 현지에서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애틀란타 공장은 현대자동차 엘라바마 공장과 290km, 기아자동차 공장과 130km 가량 떨어져 있어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 크라이슬러로부터 납품 제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국내 공장에서는 제조원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급선무”라며 “최근 노조 간부 200명을 불러 회사가 처한 상황과 제조원가 절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노조도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으로 M&A 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기존 공장에 자동화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07>